

국가어항시설물 안전점검 착수 올해부터 협회 고유 업무로 자리매김



2006년도 105개 국가어항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가 지난 3월 3일 부산 대대포항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된다.

협회가 지난해 처음으로 해양수산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위탁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어 협회의 고유 업무로 자리잡았다.

주요업무는 105개 국가어항 623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노후화가 의심되는 시설물에 대한 수중조사로 나누어진다.

연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시행되는 정기점검은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시설물의 기능과 상태를 조사하는 사전조사, 적정장비 및 기구를 투입하여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는

현장조사,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종합평가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현 상태와 이전의 상태를 비교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여부를 판별하고 필요시 개략적인 보수 보강안을 제시한다.

수중조사는 상반기 5~6월 강릉 금진항과 여수 안도항, 하반기 7월 남해 물건항과 복제주 김녕항에서 실시될 계획이다.

어촌 어항법 제58조 1항, 자연재해 대책법 제 3조의 규정에 의거한 국가어항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는 어항구조물의 안전상태를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수산기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촌·어항 기초조사 최초 실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해양수산부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2년간 전국의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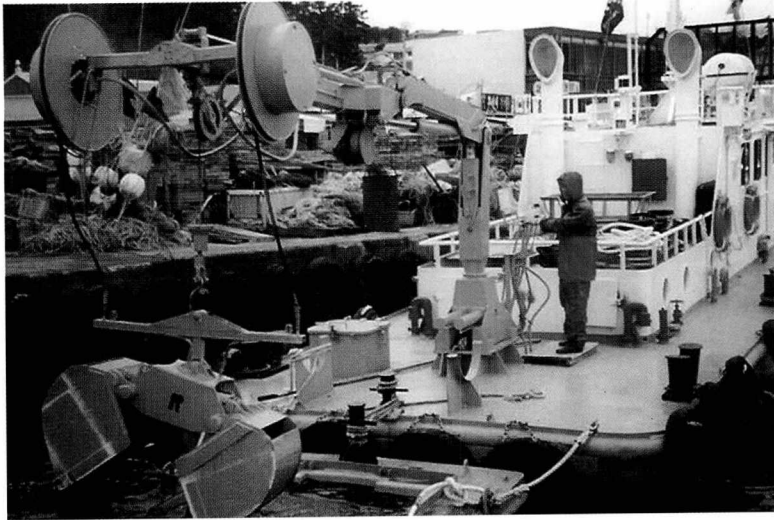
기초조사는 전국 연안 87개 시·군·구에 소재한 어촌계 1,951개소(3,871개 어촌마을)와 105개 국가어항, 308개 지방어항, 461개 어촌정주어항, 1,361개 소규모항을 대상으로 상세한 인적·물적 조사가 시행된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어촌의 연혁, 위치, 행정구역 일반현황 ▲인구, 가구, 해안선, 도서 등 인문사회현황 ▲농

업, 축산업 등 기타산업 및 경제현황 ▲어촌계, 어업생산, 소득, 어선세력 등의 수산업현황 ▲교통, 통신, 상하수도, 주택 등의 교통 및 생활환경 시설현황 ▲복지, 관광, 수산단체, 기상현황 등 어촌의 기반시설과 복지시설 등 어촌어항개발정책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총 망라한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촌 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어촌 어항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 계획 등 어촌·어항 관련 개발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어항청소선·크린오션호 '06년 업무 시작 전국 연안수역 정화 및 청항 활동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어항 청소선 7척은 지난 2월 20일 목포연안, 여수 국동항, 통영 동암항·죽림만, 포항연안, 양양 수산항에서 청항 및 해양정화 작업을 시작으로 2006년도 업무에 들어갔다.

어항청소선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동·서·남해에서 국가어항을 중심으로 척당 100일씩 오페물, 부유물 및 항행장애물을 수거처리하는 등 연안수역 정화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5개 국가어항 중 청소가 필요한 66개항과 지자체 및 수협이 요구하는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 28개

항 인근 연안수역을 중심으로 청항 및 해양정화 작업이 실시된다.

한편 다기능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크린오션' 호는 지난 3월 1일부터 인천 남항부두 앞 해상에서 오페물 수거작업을 시작으로 올해 업무에 들어갔다.

'크린오션호'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6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0일, 덕적도 및 승봉도 50일 등 총 130일 동안 서해안 일대 어항·항만 및 인근해 해역에서 기본정화업무를 수행하고 주변 어장정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지역 인공어초 주변 폐기물 수거처리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2월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의 위탁사업으로 강원도 고성, 속초 해역의 인공어초 주변 폐기물 3.5톤을 수거, 처리했다.

지난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시행된 이 사업은 1981년에서 2000년에 걸쳐 강원도 고성, 속초 해역 39개소에 시설된 인공어초를 대상으로 그 주변 폐기물 등을 수거, 처

리하는 방식으로, 당초 4월 중순까지 잡혀있던 사업기간을 한달 가량 앞당겨 준공하는 성과를 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설된 인공어초 39개소의 위치를 파악하고, 잠수사와 해상크레인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양한 다음 운반, 하역, 위탁처리 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다기능 어항 개발 기본계획 확정 내년부터 격포항·홍원항 등 5개 어항 본격 개발 착수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4년 선정한 5개 어항에 대한 '다기능 어항 개발 기본계획(안)'이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부산 대변항, 거제 지세포항, 서천 홍원항, 부안 격포항, 여수 국동항 등 5개 국가어항에 대해 기본설계용역,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계획 확정 후, 올 상반기 중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부산 대변항의 경우 공간별로 특화된 배치계획을 수립, 각종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거제 지세포항은 해양레포츠 지구, 육상 어항 기능지구, 낚시테마 지구 등 3개 지구로 구분, 계획됐다.

서천 홍원항의 경우에는 마리나 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도입했고,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낚시잔교, 수산물 판매시설, 부잔교식 물양장 시설 등도 배치했다.

부안 격포항은 채석강 주변을 친수시설로 정비해 낚시 체험장, 함상테마파크, 다목적광장 등을 도입했다.

여수 국동항은 수산물 관련시설을 대폭 확충했고, 지역민을 위한 친수공간, 수변산책로와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주차장, 숙박, 상업 시설 등이 계획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35억원을 투입, 해당 어항에 대한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격포항과 홍원항에 각각 300억과 217억, 대변항·지세포항·국동항은 2008년부터 299억·300억·391억의 국비를 각각 투입하여 다기능 어항으로 본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최익영 어촌어항협회 전무이사 취임



한국어촌어항협회는 3월 20일 전무이사에 최익영씨(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 57세)를 임명했다.

신임 최익영 전무이사는 67년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수산청,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어항개발과, 서해어항사무소 관리과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총무과장, 국립수산물연구원 총무과장, 어촌어항과장을 역임하는 등 수산 및 어촌어항은 물론 조직관리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